

[2019-2-24] 주일 말씀 녹취록

말씀 : 강만석 목사님

제목 : 장점을 보는 마음

본문 : 사무엘하 1:23-27

*23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이스라엘 딸들이 사울을 슬퍼하여 울찌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25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내 형 요나단이며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27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 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을 드디어 사울의 죽음 후에 그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사울은 다윗을 괴롭혀 왔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딸을 아내로 주어서 그를 죽이려 하다가 뜻이 성취되지 못하자 다른 남자에게 딸을 재혼 시킵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을 다녔지만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따라 다녔습니다 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사울이 고맙게 생각했지만 다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구해 주었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었는데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협박한 사람입니다 미워하고 적대시 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친 자입니다 고향과 집을 떠나 도망자로 살게 만든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사단에서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다윗을 죽이는 것이 마치 사명처럼 생각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가끔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도와준 사람입니다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사람이 원수를 가장 사랑할 때 그가 죽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 대적자와 원수가 죽을 때 가장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대적이 쓰러졌을 때 내심으로는 큰 쾌재를 부르는 것이 사람들의 일방적인 본성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은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얼마나 통쾌하고 고소했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하였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슬퍼하며 울며 금식 하였다 했습니다. 슬픔의 정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큰 소리로 울었다 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 산 사람이 다윗 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삶이 타인의 장점을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타인의 장점을 보고 사느냐 단점을 보고 사느냐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타인의 장점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복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보고 사느냐 단점을 보고 사느냐 개인의 선택이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우리 권사님을 보고 아유 몸매가 이렇게 늘씬 하시네 정말 처녀같으시네 이런 말하는 것과 아니면 나이들어 주책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선택입니다만은 어떤 것이 본인에게도 남에게도 듣기가 좋겠습니까? 우리 부부도 남편이나 아내의 단점만 보면 같이 못 삽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 갈 때 세상에서 대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타인의 장점을 보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타인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눈이 바로 가야 합니다 사업이나 교회나 모든 지도자들은 반드시 장점을 보고 장점을 칭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늘 단점을 찾아 비판 잘하는 사람은 지성인이 아니라 복음쪽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확률이 참 많습니다 혹시 내 자신이 사단에 잡혀 있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나다니엘 이분은 참 회의주의자였지만 어디 나타날데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그를 보고 칭찬 하셨을까요? 어떤 장점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의 장점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덕스럽고 다혈질이었지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타인의 실패가 내게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장점을 단점으로 보고 소문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점과 약점을 공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말할 못 해서 안달입니다 어떻게 하든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내입에서 일단 뱉은 말은 내가 책임지게 되고 그 말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속성이 99가지가 장점 보다 한 가지 단점을 아주 아주 크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고 계십니까? 복음의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훨씬 유익이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는데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든 함께 면 복이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분명히 됩니다 함께 하면 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면 복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 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일 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복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함께 하기 싫은 사람 함께 일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무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저희 기도는 여러분이나 제가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일하면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십니다 너와 네자손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있는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있던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한 마디로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마음이 최고의 좋은 마음이실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악하고 범죠히고
자기의 책임과 죄를 전부 하와에게 전가하는 그런 존재로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친구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경쟁 상대로 인식 하게 됩니다 여기에
시기,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잃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 사건에 다윗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사울도 하나님의 기쁨 부은 자로 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해도 남편이 부족하고 아내가 부족해도 자녀도 부족해도 내가 섬기는 사장이나
웃사람이나 목사님이나 부족해도 한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져 같이 일하기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을 볼 때 자기 상처에 주목하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상대방을
단점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반드시 보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 복음에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4장 17절부터 18절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시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21절에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에덴동산에 수많은 과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하필이면 먹지 말라한 선악과에 시선이 집중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장점이 많은 우리 복음의 사람도 내 자신이 변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에 속으면 반드시 보지 않아야 될 걸 말하지 않아도 될 걸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사단은 죄 짓기 좋은 곳으로 나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단점을 드러내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은 이 죽음 앞에서 그들의 단점을 들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들어
칭송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매사에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복음의 확산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성도들 보면 한결같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장점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은 부족해서 그렇게 못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상황도 생각하기 따라서 좋게 여길 수도 있고 나쁘게 여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들 지금 공사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비가 많이 오니깐 지붕이 새서
지붕 하는 사람이 오셔서 제가 지붕을 속히 좀 해 달라고 선금을 주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되도
안오셔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셨어요 그분은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벌써 오셨냐고.

비가 오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참 기분이 좋아서. 만약에 제가 왜 이제 오셨냐구? 지금 비가 새서 다 난리인데. 이런 말 보다 어떤 말이 낫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복음의 사람 다윗이 사울이 있었기에 다윗은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붓닛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사울을 낳고 기도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 복음 될 수 있는 말 해야 됩니다 인신매매 하던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감옥에 가둔 힘 썬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은 영적 그릇과 영적 힘을 넓혀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상처가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장점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복음으로 아름다운 사람 되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 정말 이 세상에 귀한 분들입니다 어떤 분이 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아주 아주 귀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가지고 사는 사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교회 나와서 참 이런 저런 말씀을 듣지만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되신 비빌을 다 아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 주간 사시면서 마음껏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고 복음을 누리시고 내가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의 장점을 보고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남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 시대마다 쓰임 받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르셔서 만방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되신 이 사실을 내 현장에서 늘 고백하며 전할 수 있도록 축복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 받는 역사들이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